

▶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하편 ◀

3. 한국 문학의 성격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 *어미 말과 새끼 말 (9문제)-----1쪽
- *송인 (25문제)-----8쪽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사미인곡 (32문제)-----19쪽
- *태평천하 (32문제)-----35쪽

(3) 한국 문학의 양상과 발전

- *정선 아리랑 (7문제)-----58쪽

4. 한국 문학의 흐름

(1) 서정 갈래의 흐름

- *제망매가 (29문제)-----64쪽
- *청산별곡 (45문제)-----77쪽
- *어부사시사 (30문제)-----97쪽
- *쉽게 씌어진 시 (44문제)-----114쪽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32문제)-----135쪽

(2) 서사 갈래의 흐름

- *김현감호 (9문제)-----152쪽
- *구운몽 (43문제)-----159쪽
- *너와 나만의 시간 (32문제)-----187쪽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0문제)-----211쪽

(3) 극 갈래의 흐름

- *봉산 탈출 (11문제)-----232쪽
- *원고지 (22문제)-----245쪽

(4) 교술 갈래의 흐름

- *관상가와와 대화 (9문제)-----263쪽

◆빠른 전체 정답-----271쪽

◆해설-----274쪽

교재 버전: 2021.02.01

“월명사간” 품격 명민

생사(生死) 길은
살과 죽음의 길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이승, 이 세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는 간다는 말도
누이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기: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의 요절(夭折)을 암시함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죽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 → 누이

한 가지에 나고
같은 부모
 가는 곳 모르온저. ▶ 사: 필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아야,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감탄사 시상의 전환 정서의 집약 화자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결: 인간적 고뇌의 종교적 승화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을 기약함

●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10구체 향가로, 이승에서는 헤어졌지만 저승에서는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작가의 불교적 믿음이 깔려 있다. 『삼국유사』에는 이 작품과 관련하여 ‘월명사가 재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뿔오리바람이 일어 지전(紙錢)을 서쪽으로 날려 보냈다’라는 배경 설화가 전한다. 이 작품은 또 다른 향가인 ‘찬기파랑가(讚者婆郎歌)’와 함께 표현 기교 및 서정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제재 연구

길래	10구체 향가	시대	신라 35대 경덕왕 때
성격	추모적, 애상적, 불교적, 비유적		
제재	누이의 죽음		
주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 극복 의지 / 유한한 삶으로 인한 괴로움의 종교적 승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되고 세련된 기교를 사용함. • 누이와의 이별의 아픔을 자연 현상에 비유함. • 죽음이라는 인간고를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노래함. 		

● 이 작품의 10구체 향가로서의 형식적 특성

- 시상이 세 부분(4구-4구-2구)으로 나뉘어 전개됨.
- 마지막 2행(나구의 첫머리 부분에 ‘아야, 아으’ 등의 정서를 고양하고 시상을 집약하는 감탄사가 오도록 구성함으로써 시적 전환을 이루고 구조의 완결성을 구현함.

4-(1) 제망매가

1. 3 구상에 따른 사상 전개 구성

기(1~4행)	서(5~8행)	결(9~10행)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 화자의 정서 제시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 화자의 정서 고조	인간적 고뇌의 종교적 승화 → 정서의 전환과 사상의 마무리

2. 시구의 비유적 의미와 효과

시어	의미와 효과
이른 바람	'요절'의 의미로, 누이의 요절에 대한 비애감을 드러냄.
떨어질 잎	'죽은 누이'의 의미로, 죽은 누이로 인한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냄.
한 가지	'같은 부모'의 의미로, 죽은 누이와 혈육 관계임을 드러내고 안타까움을 강조함.

3. 「오백년도읍지름~」 격어 비교

	「제망매가」	「오백년도읍지름~」
갈래	10구체 향가	고려 말 시조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서-결'의 3단 구성 • 낙구(결 부분)의 첫머리에 '아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성 • 종장의 첫머리에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



10구체 향가와 시조 모두 3단 구성을 취하며, 같은 기능을 하는 감탄사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볼 때, 10구체 향가의 구성 방식과 낙구의 형식이 시조에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배경 설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향가의 주술성



“제망매가” 학습 활동 안내

1. 이 작품의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자.

1~4행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운 심정을 제시함.
5~8행	요절한 누이를 그리워하며 삶의 무상함을 느낌.
9~10행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느낀 삶의 무상함을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함.

2. 이 작품에 쓰인 시구의 비유적 의미를 탐구해 보자.

이른 바람	누이동생의 이른 죽음
이에 저에 떨어질 잎	죽은 누이동생
한 가지	같은 부모

3. 다음은 이 작품의 배경 설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가의 기능을 파악해 보자.

월명사는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는데, 문득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나더니 종이돈[紙錢]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했다. [중략] 월명사는 늘 사천왕사(四天王寺)에서 지냈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밤에 절 문 앞의 큰길을 거닐며피리를 불었는데,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추었다. 이로 인하여 그곳을 월명리(月明里)라 하였고, 월명사도 이 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월명사는 곧 능준대사(能俊大師)의 제자이다.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한 지 오래되었는데, 향가는 『시경(詩經)』의 송(頌)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따금 천지 귀신을 감동시킨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4』에서

-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는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종이돈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함.
- 피리를 불어 달을 멈추게 하고 천지 귀신을 감동시킴



향가의 주술적기능

4. 다음 시조 작품을 「제망매가」와 비교하며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길재

(1) 위 시조의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자.

초장	홀로 옛 도읍지를 돌아봄.
중장	변함없는 자연과 고려의 충신이 사라진 인간사를 대조함.
종장	고려의 융성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인생무상을 느낌.

(2) 「제망매가」의 ‘아아’와 위 시조의 ‘어즈버’가 담당하는 공통된 기능을 말해 보자.

「제망매가」 9행의 ‘아아’와 「오백 년 도읍지를~」 종장의 ‘어즈버’는 작품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때 마지막 부분의 맨 앞에 위치하며, 시상을 집약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生死(생사)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늠다 말사도 물다 니르고 ㉢가늠넛고.
[B]	어느 7홀 이른 브르매 이에 데에 브러덜 님곤, 혼든 가지라 나고 가는 곧 모드르든 ㉣아야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도(道) 닷가 ㉥기드르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적 대상의 부재를 하강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형상화 하고 있다.
- ㉡ 시적 상황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 ㉣ 대조되는 시적 공간을 통해 대상과의 단절에 따른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
- ㉤ 시적 대상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 내고 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2.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보기>
월명사가 일찍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齋)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월명사가 향가를 부르자 문득 광풍(狂風)이 불어 지전(紙錢-종이로 만든 저승의 여비 돈)을 서쪽으로 날려 없어지게 하였다.

- ㉠ ㉠ : 화자가 머물고 있는 '이승'으로 '누이'의 죽음이 일어난 공간을 의미한다.
- ㉡ ㉡ : 행위의 주체를 '누이'로 보면 삶에 대한 미련으로, '화자'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 :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설의적 의문으로 드러난다.
- ㉣ ㉣ : '누이'와의 재회를 기대하는 공간으로 화자의 미지(未知)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난다.
- ㉤ ㉤ : 화자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3.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시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과 가장 유사한 작품은?

- ㉠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나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엌었습니다.
- ㉢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 신이나 삼아 줄 걸 슬픈 사연의 / 울음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 ㉤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 간간이 / 자유를 말하는데, /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4. [A]와 [B]의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 시와 <보기>의 형식적인 공통점 두 가지를 밝히시오. 또한 ㉠의 시적 기능 두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보기>
봄이 왔다 후퇴 소식을 모르더니 냇가에 푸른 버들 네 온저 아도괴야 어즈버 인간 이별을 또 엇지 후늬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生死路隱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此矣有阿米次伊遣
㉠나는 간다는 말도	吾隱去內如辭叱都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毛如云遣去內叱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於內秋察早隱風未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한 가지에 나고	一等隱枝良出古
가는 곳 모르온저.	去奴隱處毛冬乎丁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阿也彌陀刹良逢乎吾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道修良待是古如
	- 월명사, 「제망매가」 -
(나)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솟이런가 흐노라.	
	- 길재 -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는 정제되고 세련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 (나)는 대구법, 영탄법 등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가)와 (나)는 작품을 3단으로 구성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가)와 (나)는 처한 상황에 대한 무상감과 애절한 정한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 (가)의 낙구(落句) 첫 머리에 오는 감탄사가 (나)의 종장의 첫 음보에 영향을 주었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6.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 ㉡ ㉡ : 시적 대상이 요절(夭折) 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 ㉢ ㉢ :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무상의 정서가 드러난다.
- ㉣ ㉣ : 시적 화자와 대상이 같은 부모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 ㉤ ㉤ : ㉣을 기준으로 시상을 전환하고 정서를 집약하고 있다.

원북고등학교 (서울)

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기>
향가는 삼국 시대 말에 발생하여 통일 신라 시대에 성행하고 고려 시대 초까지 향유되었던, 우리말로 된 시가를 통칭하는 용어로 「균여전」 등에 실려 전해진다. 향가는 한자를 활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한 향찰이나 이두 등의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향가는 대개 4구체, 8구체, 10구체로 구분하는데 4구체가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8구체나 10구체는 개인 서정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10구체 향가는 형식적인 면에서 고려 말기부터 창작된 평시조와 대응되는 점에서 우리 시가의 전통적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 ㉠ (가)는 민요적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 ㉡ (가)의 음보는 (나)의 음보에 대응된다.
- ㉢ (가)와 (나)는 향찰과 이두 등의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 ㉣ (가)의 낙구 첫 어절은 (나)의 종장 첫 구에 대응된다.
- ㉤ (가)의 '3-5-2행'의 3단 구성은 (나)의 '초-중-종장'의 3단 구성에 대응된다.

광양고등학교 (서울)

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하고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이다. 빈칸 ㉠, ㉡, ㉢에 들어갈 어휘로 가장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보기>
향가는 대개 4구체, 8구체, 10구체로 구분하는데 4구체가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8구체나 10구체는 개인 서정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10구체의 낙구 첫 어절에 등장하는 감탄사는 시조종장의 첫 구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가의 전통적 흐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학생들의 이해한 내용
- (가)의 '아아'는 전승의 측면에서 (나)의 시조 종장의 감탄사인 (㉠)와 영향관계가 있군. 이런 감탄사가 담당하는 공통의 기능은 시상을 (㉡)시키는군. - (가)의 '4구+4구+2구' 형태는 (나)의 '초장+중장+종장'의 (㉢)에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군.

“청산별곡” 분석 방법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회자가 동경하는 세계 현실 도피의 공간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청산에서의 삶과 당락 소박한 음식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후렴구 → 각 연을 보충할 'ㄹ' 음과 'ㅇ' 음을 사용하여 맑고 경쾌한 느낌을 줌 ▶ 청산에 대한 동경

우러라 우러라 새어 자고 니러 우러라 새어.
회자가 동경상편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나쁘다 많은 회자의 비애와 슬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삶의 고독과 비애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청산과 대비)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 • 속세를 바라보며 피상에 동경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속세에 대한 미련과 연민

이렁공 더렁공 **호야** 나즈란 디내와손며.
이척척의 낮은 지내와연민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동시원도 길 사름도 빚은-회자의 고독감이 극대화되는 시인적 배경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절망적인 고독과 비애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어디에다 불행한 운명 인간의 운명적안식
의리도 퍼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운명에 대한 체념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운명에 대한 체념

● 제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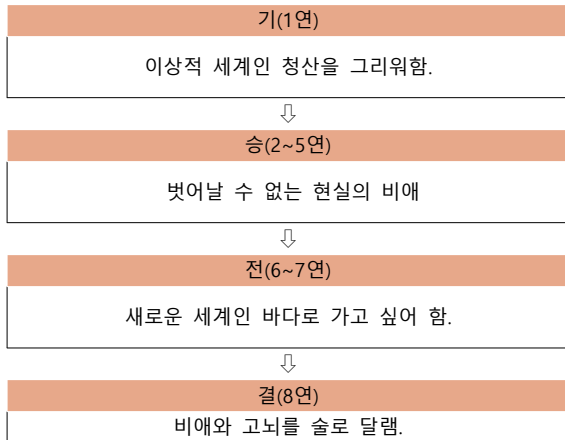
갈래	고려 속요(전 8연의 본연체)
성격	예상적, 현실 도피적
제재	청산, 바다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b-a' 형태의 반복 표현이 사용됨. • 후렴구와 'ㄹ, ㅇ' 음의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드러냄. • 고도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삶의 고뇌와 애환을 진솔하게 노래함. • 감정 이입, 상징, 의인, 반복, 비교 등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작품 감상**

이 작품은 고려인들의 청서를 문학적으로 잘 담아낸 고려 속요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삶의 애환 속에서 '청산'과 '바다'로 집약된 안식처를 찾아 삶의 고통을 덜고자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고통과 비애를 술로써 달래려 한다. 이렇듯 이 작품은 고려 시대 민중들의 삶의 고뇌와 애환을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통해 잘 보여 주고 있다. 표현면에서 볼 때, 형태상의 균제미가 뛰어나며, 후렴구와 '르, ㅇ' 음을 사용하여 음악성도 뛰어나다. 그러나 그 뜻을 명확히 풀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 해석상의 논란도 있는 작품이다. 『악장가사』에 전문이 실려 있고, 『시용향악보』에 제1연과 곡조가 실려 있다.

1. **작품의 서사적 구조**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인 청산과 바다를 찾아가는 심리적 추이를 중심으로 하면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 됨.



2. **작품의 구성**

연	소재	내용	연	소재	내용
1연	청산	청산에 대한 동경	5연	돌	운명에 대한 체념
2연	새	삶의 고독과 비애	6연	바다	바다에 대한 동경
3연	새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	7연	사슴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
4연	밤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8연	강수	술을 통한 고뇌의 일시적 해소

3. **시어의 상징적 의미**

청산, 바를	화자의 이상향으로,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
(2연의) 새	화자의 분신,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
밤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
돌	①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인간의 운명적인 삶. ②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

4-(1) 청산별곡

4. 특징

'a-a-b-a'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랏다. a a b a
3·3·2조의 3음보 율격으로 리듬감을 드러냄.	⇒	말위랑√드래랑√먹고√청산애√살어리√랏다. 3 3 2 3 3 2
'ㄹ'과 'ㅇ' 음의 반복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어 음악적 효과를 거둠.	⇒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 잉 무든 장글란, 이링공 더링공

5. 후렴구의 기능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의미 없이 악률에 맞추기 위한 후렴구 • 악기 소리의 의성어로서 흥을 돋우고 노래의 절주에 맞추기 위한 것 • 'ㄹ, ㅇ'의 연속음으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두드러진 활음조 현상)를 나타내며 낙천적이고 명량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작품의 정서와 상반됨. • 각 연을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줌.
--------------------------	--

6.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화자	작품의 해석
'유랑민'이라는 견해	고려 후기에 계속되는 전란 등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나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었던 유랑민의 고통과 삶의 비애를 나타낸 노래임.
'실연한 사람'이라는 견해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현실 도피적인 노래임.
'당대 지식인'이라는 견해	속세의 번뇌를 떨쳐 버리기 위해 청산을 찾아 위안을 구하면서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지식인의 노래임

7. 한림별곡과의 비교

	「청산별곡」	「한림별곡」
갈래	고려 속요	경기체가
작가층	고려 시대의 평민 / 지식인	고려 후기의 신진 사대부
내용	고려 민중의 삶과 비애, 고뇌	신진 사대부의 학문적 자부심과 긍지

● 미적 특징

음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2조의 3음보 율격 사용 • 'a-a-b-a' 구조의 반복 • 후렴구의 사용
형상성	•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인 심상으로 형상화함('새' 등).
함축성	• 함축성이 높은 시어의 사용('청산', '바다', '돌' 등)

“청산별곡” 학습 활동 안내

1. 각 연의 소재를 중심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연	중심 소재	중심 내용
1	청산	현실을 떠나 청산에서 살고 싶음.
2	새	새의 울음을 듣고 삶의 비애와 고독을 느낌.
3	가던 새	떠나온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번민함.
4	밤	밤이 되자 절망적 고독과 외로움을 느낌.
5	돌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고 체념함.
6	바다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바다에서 살고 싶음
7	사슴	절박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람.
8	강술	술을 통해 삶의 고뇌를 해소하고자 함.

2. 다음에 제시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자.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청산: 현실 도피의 공간, 화자가 그리는 이상향
- 멀위랑 드래: 소박한 음식, 소박한 삶

3. 이 작품의 운율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정리해 보자.

운율상 특징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2조의 3음보 율격 사용 • ‘a-a-b-a’ 구조의 반복 • 후렴구를 통한 ‘ㄹ, ㅇ’ 음의 반복 	노래의 흥을 돋우며 리듬감을 형성함.

본절체는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자가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 이어 부르기 쉽고, 후렴구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노랫말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고려 속요는 오랜 기간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며 이어져 올 수 있었다.

4. 다음은 고려 시대에 창작된 경기체가 대표작인 「한림별곡」의 일부이다. 이를 읽고, 내용과 작가층의 측면에서 「청산별곡」과 「한림별곡」을 비교해 보자.

<제1장>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六
 원순문 인노시 공노소륙
 李正言 陳翰林 雙韻走筆
 이정언 단한림 상운주필
 沖基對策 光鈞經義 良鏡詩賦
 통기대척 광균경의 량경시부
 위 試場 스 景 기 엇더하니잇고
 시당 경
 (葉) 琴學士의 玉笋門生 琴學士의 玉笋門生
 금혹스 옥순문칭 금혹스 옥순문칭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 한림제유, 『한림별곡』에서

제지 연구	
갈래	경기체가
성격	풍류적, 함락적, 귀족적
주제	신진 시대부들의 학문적 지부심과 외유적 기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장체(分章體)를 이루고 있으며, 각 장의 끝에 후렴구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고려 속요와 형식적 유사성이 있음. • 음보율, 각 연의 규칙적 반복, 후렴구 등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음.

4-(1) 청산별곡

	작품의 내용	작가층
청산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애환과 비애 •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한 자연으로의 도피 • 현실의 번뇌를 잊기 위해 속세를 떠난 지식인의 염세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시대의 평민 •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지식인
한림별곡	신진 사대부의 학문적 자부심과 긍지	고려 고종 때 한림의 학자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ㄷ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랑공 ㄷ렁공 ㅎ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ㄷ디던 돌코 누리라 마지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저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ㄴ모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ㅎ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살어리랏다 ㉠살리라. 살고 싶구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러라 ㉠올어라(명령형). ㉡우는구나(감탄형). ㉢노래하라(명령형)/
 *가던 새 ㉠날아가던 새. ㉡갈던 사래.
 *잉 무든 장글란 ㉠이끼 묻은 쟁기일랑. ㉡날이 무딘 병기(兵器)랑. ㉢이끼 묻은 은장도(銀粧刀)랑.
 *에정지 아직 정확한 뜻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이라고도 함.
 *사스미 ㉠사슴이. ㉡'사르미'의 오기(誤記)

원목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 작품의 정서와 상반되는 명량한 느낌의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다.

-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원목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청산별곡>은 고려 가요의 대표작으로, 현실을 벗어난 공간을 소망하고 있지만, 운명적 고뇌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고려 시대 불안한 대내외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상징성 짙은 시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학성도 인정받고 있다. 나아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의 괴로움과 비애를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 현실을 벗어난 '물 아래'를 동경하는 화자의 복잡한 정서를 엿볼 수 있다.
- ㉡ '밤'은 불안한 대내외적 현실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다.
- ㉢ '돌'은 운명적 고뇌를 상징하는 시어로, 비애를 촉발하는 매개체이다.
- ㉣ '히금'은 불안한 대내외적 현실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 ㉤ '강수'는 현실의 괴로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대전지족고등학교 (대전)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평민들의 성정이 묻어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 하지만 고려 후기는 무신들의 집권과 내란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고독감, 외로움과 불안 의식, 체념과 좌절, 절망 등을 담은 노래들이 불리기도 하였다.

- ㉠ 1연의 '청산'과 6연의 '바탈'은 현실 도피의 공간이자 화자의 이상향이라 볼 수 있겠군.
- ㉡ 2연의 '새'는 화자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동병상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
- ㉢ 3연의 '잉 무든 장글란'을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할 경우 화자는 전란으로 농토를 잃은 유랑민으로 볼 수 있겠군.
- ㉣ 4연의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밤'은 화자가 홀로 보내야 하는 시간으로 고독과 절망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 5연의 '돌'에 맞아 우는 화자의 모습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운명으로 인식하며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멸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랑공 더링공 햐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모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미상, 「청산별곡」 -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A : 이 작품은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고려인들이 겪었던 삶의 애환과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 B : 1연의 '청산'을 이상향으로 해석하면 ㉠은 시적 화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비유적 표현일거라고 생각해.
- ㉢ C : 2연의 '우러라'를 '노래하라'로 해석해보니 ㉢은 시적 화자가 청산에 살면서 얻은 만족감을 감정 이입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 ㉣ D : 3연의 '가던 새'를 '날아가던 새'로 해석하면 ㉣은 '물 아래'의 속세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미련을 드러내는

구절이 되겠군.

- ㉠ E : 8연의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를 '조롱박꽃 누룩이 매워 (나를) 붙잡으니'로 해석하면 ㉠은 화자가 고통의 근원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채 술로 삶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

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1장>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六
 원순문 인노시 공노소륙
 李正言 陳翰林 雙韻走筆
 니정언 단한림 상운주필
 沖基對策 光鈞經義 良鏡詩賦
 통기대척 광균경의 량경시부
 위 試場 人 景 其 엇더허니잇고
 시당 경
 (葉) 琴學士의 玉筍門生 琴學士의 玉筍門生
 금혹스 옥순문싱 금혹스 옥순문싱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 한림제유, 「한림별곡」에서

- ㉠ 윗글은 분연체를 이루지만 <보기>는 단연으로 된 작품이다.
- ㉡ 윗글과 <보기>는 모두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윗글과 <보기>는 모두 화자의 내면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윗글과 <보기>의 작가 층은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지식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 윗글은 후렴구를 통해 형태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얻고 있지만 <보기>에는 후렴구가 없다.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보기>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을 쓰고, <보기>의 밑줄 친 의미를 상징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가 겪는 비애의 원인은 화자의 외부에 있음을 알 수 있고, 화자는 갑자기 찾아온 비극적 운명 앞에서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이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양재고등학교 (서울)

7. 윗글의 5연과 8연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양재고등학교 (서울)

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속세와 대조되는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을 뜻한다.

- ㉡ ㉡ : 후렴구로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 ㉢ ㉢ : 시적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자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이다.
- ㉣ ㉣ :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새'로 해석한다.
- ㉤ ㉤ : 낮 동안의 이런저런 상념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광영고등학교 (서울)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1연의 '청산'과 4연의 '바르' : 가고 싶은 이상향
- ㉡ 2연의 '새'와 3연의 '새' : 감정 이입의 대상
- ㉢ 1연의 '멀위'와 6연의 '누므자기' : 보잘 것 없는 삶
- ㉣ 3연의 '물 아래'와 5연의 '괴리도' : 속세에 대한 미련
- ㉤ 7연의 '드로라'와 8연의 '비조라' :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

광영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의 화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1.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청산'과 '바르'은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서 가는 도피처로서의 성격을 띤다.
- ㉡ '널라와 시름 한 나도'는 화자의 시름이 더 많다는 뜻으로, 화자와 새의 대조법을 통해 시름의 깊이를 표현한다.
- ㉢ 작가를 유랑민으로 보았을 때, '임무든 장글란'은 '이끼 문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하며 이는 삶의 터전을 오랫동안 떠나있음을 암시한다.
- ㉣ '마자셔 우니노라'를 통해 인간에게 닦친 운명적 비애에 화자는 체념적인 태도로 일관함을 알 수 있다.
- ㉤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을 통해 해결하려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어부사시사” 문법 정리

춘사(春詞) 1

압개에 안개 젓고 뒤희회 **히** 비친다

압 압갓개 안개 안개 젓고 안개 뒤희회 안개 비친다

비 떠라 **비** 떠라 - 여음구 각 수마다 다름
(각 문장에서 귀향까지의 과정을 나타냄)

밤물은 거의 디고 **남물**이 미러 온다

밤물 밤물 디고 밤물 남물 남물 미러 남물 온다

지국충(至勿兪) 지국충(至勿兪) 어사와(於思卧) 후렴구 고려 기묘의 형태적 특징을 이어 받음
 지국충은 노 젓는 소리(지그랑-의상)의 음차. '어사'는 노 저을 때 어부의 소리(어머저)와 음차

강촌(江村) 온갖 고지 먼 빛치 더욱 **도타** ▶ 춘사 1-강촌의 봄 풍경
 보살도 작가가 쓴 거만 곳 계정감을 나타내는 시어 **도타**

특징
 • '어사' 후렴 구로 강촌의 봄경관을 감각적 묘사를 시도함.
 • 여음구와 후렴구가 규칙적으로 등장하여 당시조에 변화를 줌.
 • 여음구를 통해 화자의 동선을,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행동을 보여 줌.

하사(夏詞) 2

넉넉의 밥 싸 두고 반찬이란 **장만** 마라

넉넉의 넉넉의 밥 싸 넉넉의 밥 두고 넉넉의 밥 반찬 반찬 장만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립(靑箒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裳衣)** 가져오나

지국충(至勿兪) 지국충(至勿兪) 어사와(於思卧)

무심(無心)호 백구(白鬪)는 내 **쫄논가** 제 **쫄논가**

무심(無心)호 물어입체의 경사 백구(白鬪)는 화자의 욕심 없는 심의 태도 표현 내 **쫄논가** 제 **쫄논가**

▶ 하사 2-물어입체物狀一體된 심의 즐거움



추사(秋詞) 9

옷 우희 서려 오디 **치운** 줄을 모뎠로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도선(釣船)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과 언더 **하나**

지국충(至勿兪) 지국충(至勿兪) 어사와(於思卧)

넉일도 이리 **하**고 모뢰도 이리 **하**자

▶ 추사 9-속세를 잊고 사는 님시의 즐거움

백심, 흰서저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의 상황	어촌에서 자곤
화자의 정서	어지러운 안락 만족감을 느낌

동사(冬詞) 10

어와 저르려 간다 연식(宴息)이 **만당토다**

비 붓터라 **비** 붓터라

눈 눈 뿌린 길 **블근** 곳 **훑터던** **티** **훑치며** 거러가서

지국충(至勿兪) 지국충(至勿兪) 어사와(於思卧)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넙도록** 송창(松窓)을 **비겨** 잇자 ▶ 동사 10-눈 내리는 밤의 풍취
 서봉 서봉 넙도록 송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창 송창 송창 비겨 기대어 잇자 잇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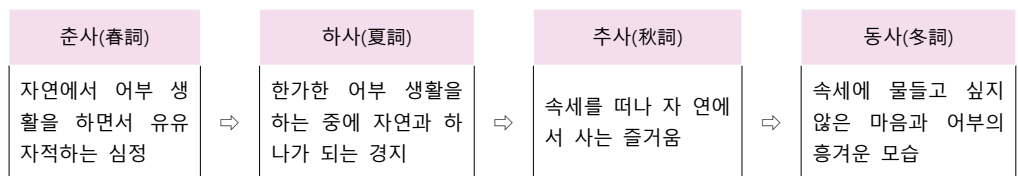
● 작품 감상

이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어부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처사(處士)를 말한다. 처사는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를 일컫는다. 즉 혼탁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자족적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형상인 것이다. 율선도는 이러한 처사적 삶을 담은 「어부사시사」를 봄·여름·가을·겨울 각각 10수씩 총 40수로 지었다. 각 수마다 여음구와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어 연시조로서의 내용적 연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것들을 떼고 보면 각 수는 모두 '초장-중장-종장'을 갖춘 평시조의 형식을 지님으로써 개별적인 작품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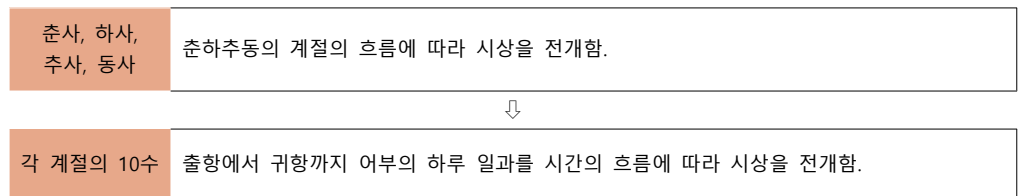
● 제재 연구

갈래	연시조(춘하추동 각 10수씩 전 40수)	시대	조선 효종 때
성격	분류적, 전원적, 자연친화적		
제재	어촌의 자연과 어부의 삶		
주제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적 표현 구조 안에서 다채로운 감각적 묘사를 시도함. • 여음구와 후렴구가 규칙적으로 등장하여 평시조에 변화된 점. • 여음구를 통해 화자의 동선을,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행동을 보여 줌. 		

1. 사상 전개



2. 흐름에 따른 전개



3. 화자의 상황과 정서

<p>화자의 상황</p>	<p>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고 있음.</p>
<p>화자의 정서</p>	<p>어지러운 인간 세상을 떠나 자연에서 사는 것에 만족감을 느낌.</p>

4. 의미와 기능

	여음구	의미		여음구	의미
1수	비 떠라 비 떠라	배 띄워라	6수	돋 디여라 돋 디여라	뚝 내려라
2수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땃 올려라	7수	비 세여라 비 세여라	배 세워라
3수	돋 드러라 돋 드러라	뚝 달아라	8수	비 미여라 비 미여라	배 매어라
4수	이어라 이어라	저어라	9수	달 디여라 달 디여라	땃 내려라
5수	이어라 이어라	저어라	10수	비 붓터라 비 붓터라	배 대어라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주면서,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함. 또한 공간적 배경과 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흥취를 돋우고 사실감을 더하는 기능을 함.

5. 작품의 경사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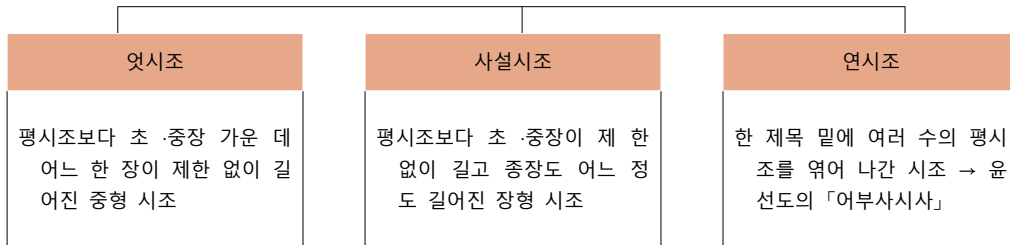
- 조선 전기 시조: 자연을 작가의 유교적 덕목을 부각하거나 연군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조선 후기 시조: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여 대상의 심미적 가치를 작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시조의 서정적 특징이 강화됨.



조선 후기 시조인 「어부사시사」에서 자연은 조선 전기의 관념적인 성격의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서 의 자연임.
→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과 한 몸이 되어 강호한정에 빠지는 것을 주제로 하며, 자연과 인간 사회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함.

6. 시조의 역사적 전개 양상

평시조 시조의 기본 형식으로, 초·중·종장이 각 15자 내외, 총 45자 내외의 단형 시조



● 이 작품의 강호한정가적 성격

「어부사시사」의 화자인 '어부'는 물고기 잡는 일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어부가 아니라 속세를 등지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조선 전기에 자연에서의 삶이나 어부의 삶을 노래한 시조들은 대개 속세를 떠난 안빈낙도의 삶을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세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나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자연 속의 삶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등장한 「어부사시사」는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의 미적 가치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해지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부사시사” 학습 활동 문제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해 보자.

(1) 각 연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 정리해 보자.

춘사	온갖 고지
하사	년납, 청약립, 녹사의
추사	서리, 치운 줄
동사	근 눈, 설월

(2) 다음에 제시된 여음구를 조사해 보자.

여음구	의미	기능
비 떠라 비 떠라	배 띄워라 배 띄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보여 줌. • 초장과 중장 사이에 들어가 리듬감을 높이고 흥을 돋움. • 어부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함.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닷 들어라 닷 들어라	
달 디여라 달 디여라	닷 내려라 닷 내려라	
비 붓터라 비 붓터라	배 붙여라 배 붙여라	

2.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정서적 특징을 파악해 보자.

조선 전기 시조에서 자연은 작가의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거나 연군(戀君)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강호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대상의 심미적 가치를 작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시조의 서정적 특징이 강화되는 것인데, 「어부사시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어부사시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임금의 은혜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연결시켜 드러내곤 했던 조선 전기의 시조와는 달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10수씩, 총 40수에 걸쳐 노래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드러내고, 이러한 자연에 빠진 화자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강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만족해하는 화자가 자연에서 갖는 여유와 흥취를 주된 정서로 한다.

3. 사설시조인 (가)와 현대 시조인 (나)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가)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뚱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 작자 미상

• 고모장지 고무래(丁자 모양의) 장지문 또는 들창. • 열장지 좌우로 열어 젖히게 된 장치.
 • 세살장지 가는 살을 가로세로로 좁게 대어 짠 장치. • 비목결새 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동글게 구부러 만든 고리 결쇠.
 • 들장지 들어 올려서 매달아 놓게 된 장치. 여 동글게 구부러 만든 고리 결쇠.

4-(1) 어부사시사

나)
 햇살의 고요 속에선
 ㅉㅉㅉ, 소리가 나고,
 바람은 쥐가 쏘 듯
 ㅅㅅㅅ, 문틈을 넘고,
 후두엽 외진 간이역
 녹슨 기차 바퀴 소리.

- 이승은, 「귀로 쓴 시」

제작 연구 (가) 작자 마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갈래: 사실시조
- 성격: 해학적, 의지적, 구체적
- 제재: 창
- 주제: 답답한 심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 특징: ①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문학성을 획득함.
 ② '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물을 열거하여 삶의 괴로움을 강조하면서 이를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임.

(나) 이승은, 「귀로 쓴 시」

- 갈래: 단시조, 현대 시조
- 성격: 감각적, 비유적
- 제재: 소리, 언어
- 주제: 귀로 감지한 풍경
- 특징: ① 자음을 활용하여 소리의 절을 형상화함.
 ②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비유적으로 드러냄.
 ③ 시각적 심상을 청각적 심상으로 치환하여 표현함.

(1) (가)를 평시조와 비교해 보고, 사실시조의 형식이 주는 효과를 생각해 보자.

(가)는 평시조가 지켜온 형식적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초장은 비교적 평시조의 전형적 음수율에 가깝지만, 중장과 종장은 평시조와 차이가 있다. 중장은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길어졌다. 중장에서 창을 내기 위한 사물을 나열함으로써 본래 평시조가 지니고 있는 리듬감과는 전혀 다른 서사적 리듬감을 형성하였으며, 내용 및 표현의 측면에서도 답답함에서 벗어나려는 시적 화자의 절실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장의 첫 구는 글자 수가 많아져 속도감이 더해짐으로써, 시적 긴장감이 집중되던 본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2) (나)는 어떤 점에서 시조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이 작품은 2003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평시조의 형식적 규칙인 3장 6구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형식적 측면에서 시조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작품에 사용된 시어나 표현이 상당히 현대적이야. 그런데 우리말의 어감을 잘 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어나 표현의 측면에서도 시조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조는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린 대표적인 갈래라고 하잖아.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압개에 안개 갓고 뒤희희 히 비천다
 ㉠비 떠라 비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 온다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사와(於思臥)
 강촌(江村)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춘사(春詞) 1>

년납희 밥 싸 두고 반찬오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립(靑莢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사와(於思臥)
 ㉢무심(無心)흔 백구(白鷗)는 내 좃논가 제 좃논가
 <하사(夏詞) 2>

옷 우희 서리 오디 치운 줄을 모톨로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도선(釣船)이 좃다 허나 부세(浮世)과 언더허니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사와(於思臥)
 니일도 이리 허고 모뢰도 이리 허자
 <추사(秋詞) 9>

어와 저므러 간다 연식(宴息)이 만당토다
 비 붓터라 비 붓터라
 ㉤그는 눈 뿌린 길 블근 곳 훗터딘 디 흥치며 거러가서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사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겨 잇자
 <동사(冬詞) 10>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원목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ㄱ. 춘사 1은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을 제시하여 풍경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ㄴ. 하사 2는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ㄷ. 하사 2의 시적 대상을 추사 9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루으로써, 유교적 가치를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ㄹ. 추사 9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을 사회로 확대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ㄹ. 동사 10에서는 불우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ㄱ, ㄴ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ㄹ
 ㉤ ㄴ, ㄹ, ㄹ

원목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화자가 <보기>의 ㉠라고 할 때,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어옹(假漁翁)'은 가짜 어부라는 뜻으로, 속세를 떠나 강호(江湖)에서 한가롭고 소박한 생활을 즐기며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대부를 의미한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흥취를 즐기는 방편으로 고기잡이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자연은 완상의 대상이지 생계의 터전은 아니었다.

- ㉠ 자연이 완상의 대상이었기에, 강촌의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가 '더욱 도타'고 말하는 거겠군.
- ㉡ 강호에서 소박한 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년납희 쌀 밥'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겠군.
- ㉢ 속세를 떠나 한가롭게 생활하는 가짜 어부이기 때문에 '옷 우희 서리'를 차갑게 느끼는 것이겠군.
- ㉣ 흥취를 즐기는 방편으로 고기잡이를 하기 때문에 '도선'은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겠군.
- ㉤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이 저물 무렵은 '연식(宴息)이 만당토다'라고 말할 수 있겠군.

원목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이 <보기>를 개작한 것이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一葉片舟(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長安(장안)*을 도라보니 北闕(북궐)*이千里(천리)로다.
 魚舟(어주)*에 누어신들 잇은 적이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제세현)*이 업스랴.
 - 이현보, 「어부가」

*일엽편주 : 자그마한 배
 *만경파 : 넓은 바다
 *인세 : 인간 세상, 속세
 *장안 : 서울, 한양
 *복궐 : 궁궐
 *어주 : 고깃배
 *제세현 : 세상을 구할 여진 인재

- ㉠ 속세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 첫 번째 여음구를 통해 출항에서 귀항까지 화자의 동선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 두 번째 여음구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살리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된 물아일체의 경지를 구체적 대상을 통해 표시한다.
- ㉤ 계절에 따라 펼쳐지는 어촌의 풍경 및 화자의 생활과 그에 따른 흥취를 더욱 잘 그려낸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여음구로서 배의 출항부터 귀항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주며 작품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
- ㉡ ㉡은 노 저을 때 나는 소리와 어부가 외치는 소리의 의성어로, 작품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운율감을 형성하고 통일성을 부여해 준다.
- ㉢ ㉢에서 화자가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 ㉣ ㉣에서 '도선(釣船)'과 '부세(浮世)'를 대조하며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 ㉤은 눈 내리는 겨울에도 낚싯배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장면으로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가 드러난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5. '하사(夏詞) 2'와 '추사(秋詞) 9'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또는 시구)를 각각 두 개씩 찾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아래 문장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하사 2'에서는 ~이/가, '추사 9'에서는 ~이/가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靑山(청산)은 옛데하야 萬古(만고)애 푸르르며,
 流水(유수)는 옛데하야 晝夜(주야)애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萬古常靑(만고상청)호리라.

청산은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언제나 푸르리라.

- 이항, 「도산십이곡 제11곡, 언학(言學) 5」

- ㉠ 윗글은 <보기>와 달리 대구법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
- ㉡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충성심과 연군의 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 ㉢ 윗글은 형식의 변형이 많이 나타나서 <보기>와 같은 평시조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윗글은 어부들의 현실적 삶을 보여주고 있고 <보기>는 사대부들의 한가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
- ㉤ 윗글의 화자는 자연을 심미적 대상으로 보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유가적 덕목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사(春詞) 1

압개에 안개 짓고 뒤희희 히 비친다

㉔ 비 떠라 비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남물이 미러 온다

㉕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사와(於思臥)

강촌(江村) 온갖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하사(夏詞) 2

년납희 밥 싸 두고 반찬이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㉖ 청약립(請藥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사와(於思臥)

무심(無心)헌 백구(白鷗)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추사(秋詞) 9

옷 우희 서리 오디 치운 줄을 모롤로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㉗ 도선(釣船)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과 언더하니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사와(於思臥)

㉘ 니일도 이리 하고 모뢰도 이리 하자

동사(冬詞) 10

어와 저므려 간다 연식(宴息)이 만당토다

비 붓터라 비 붓터라

7는 눈 뿌린 길 불근 곳 훗더딘 디 흥치며 거러가서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사와(於思臥)

㉙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겨 잇자

- 윤선도, <어부사시사>

내성고등학교 (부산)

7. 이 시를 뮤지컬로 공연하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 배경과 조명을 준비해야겠군.
- ㉒ 주인공이 어부로서의 직업의식을 드러내는 독창이 필요하겠군.
- ㉓ 배 띄우는 장면이나 노 젓는 장면에서는 코러스가 뱃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겠군.
- ㉔ 무대 효과를 사용하여 눈 내리는 밤에 달이 뜬 어촌의 풍경을 보여 주어야겠군.
- ㉕ 탈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의 음악이 필요하겠군.

내성고등학교 (부산)

8. ㉔~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㉔ : 배의 출항에서 귀향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며, 계절별로 달라지는 내용으로 이어져 이 작품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㉒ ㉕ : 노 젓는 소리와 어부의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것으로 흥취를 고조시키고 노래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㉓ ㉖ : 비를 대비하는 준비를 뜻하는 말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㉔ ㉗ : 현재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표현으로, 지금과 같은 삶을 지속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㉕ ㉘ : 눈이 오는 겨울밤의 풍경을 묘사하고 그 정취를 즐기는 모습에서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내성고등학교 (부산)

9. 밑줄 친 시어 중, **백구(白鷗)**가 환기하는 의미나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 ㉑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너 한 간 뿔 한 간 청풍 한 간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 ㉒ 말 없는 청산이오. 태 없는 유수로다.
값 없는 침뿔이오.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 ㉓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요주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하리라.
- ㉔ 짙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라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뿔 돌아 온다.
아이야,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㉕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들이치고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쉽게 씌어진 시” 분석 방법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

안락한 현실, 자기 성찰의 시간 → 화자의 외로움과 암울한 시대 현실이 드러남
육침방은 남의 나라,
구속과 억압의 공간 → 화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시대 상황을 나타냄

▶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타고난 운명

▶ 시인으로서는 슬픈 천명 자각

맘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포근함의 실제 - 부모님(조국)

현실에 맞추려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화자가 처한 시대 상황과는 거리가 멀 → 화자의 자기반성이 드러남

대학 노트를 끼고

높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회자가 처한 시대 상황과는 거리가 먼 자식

▶ 시대 현실과 괴리한 삶에 대한 회의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① 일체의 탄압에 의한 동무의 상실, ② 순수한 가치의 상실(현실주의의 적용)

나는 무얼 바라

현실적 자아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기력한 삶의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적 자아와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는 내면적 자아의 갈등으로 인한 자기 성찰

▶ 현실적 삶에 대한 무기력함과 상실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성찰의 결과

자아와 시대 현실과의 괴리감

▶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 인식

육침방은 남의 나라.

‘. . .’ 연의 반복과 변주 → 시상의 전환 및 현실에 대한 재인식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희망, 저항 의지, 부정적 현실

회자가 소망하는 시대 → 광명 (아침과 같이 반드시 찾아옴)

현실적 자아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내면적 자아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시인으로 인한

두 자아의 화해

‘등불’이 부정적 현실인 ‘어둠’을 내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믿는 화자의 소망, 어두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현실 극복 의지가 나타남.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성숙한 자아 ▶ 성찰을 통한 내적 변화 완성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눈물과 위안을 통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냄

▶ 두 자아의 화해와 미래에 대한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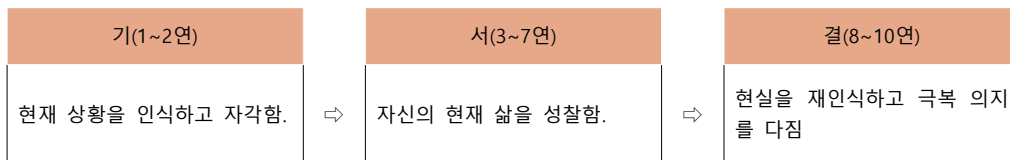
●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본 유학 중에 쓴 시로,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창밖에 밤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낫선 땅의 육철방에서 지내면서 부모님이 보내 주신 학비를 받아 높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무의미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 회의하며 부끄러움을 느낀 화자는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각성을 통해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어둠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며 자신의 손을 잡는다. 여기에서 맞잡은 손은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와 그것을 반성적으로 응시하는 내면적 자아이다. 화자의 두 자아가 악수를 나누는 화해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와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암울한 민족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자기반성을 통해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 서정시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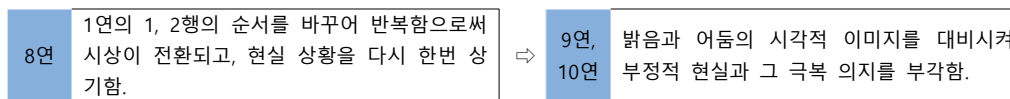
● 제재 연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고적, 의지적, 반성적
제재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주제	어두운 시대 현실로 인한 고뇌와 자기반성, 현실 극복 의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백적 어조와 의문문의 형식으로 자기 성찰의 과정을 드러냄. 상징적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함.

1. 시상 전개



2. 특징과 효과



3. 시어의 상징적 의미

밤비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배경. 암울한 시대 상황(일제 강점기)
육철방	화자를 억압하는, 낫선 현실의 공간이자 암담한 시대 상황
등불	암담한 현실을 헤쳐 나가는 정신적인 지표, 현실에 맞서려는 의지
어둠	부정적 현실. 일제 강점의 암담한 현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
아침	암담한 현실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 즉 조국의 광복
악수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

4-(1) 쉽게 씌어진 시

4. 태도 변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 시의 화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조국의 국권을 강탈한 나라에서 현실에 안주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부끄러워함.
↓	
자기 성찰	화자는 자기 성찰을 통해 '시대처럼 올 아침'을 생각하고 지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몰아낼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거듭남.
↓	
내면적 자아와의 화해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와 어두운 현실을 떨쳐 내고자 하는 내면적 자아의 갈등 상황을 '약수'를 통해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줌.

5. 「질투는 나의 힘」 차이 비교

	「쉽게 씌어진 시」	「질투는 나의 힘」
공통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냄.	
차이점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와 그것을 반성적으로 응시하는 내면적 자아의 대립과 갈등, 화해의 과정을 형상화함.	미래의 시점을 상정하여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을 형상화함.

“쉽게 씌어진 시” 학습 활동 문제

1. 이 작품의 내용을 시상 전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2연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자각함.
3~7연	무기력한 현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낌.
8~10연	현실을 재인식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2.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와 화자의 태도를 이해해 보자.

등불	새 시대를 밝히려는 의지, 현실 극복 의지
어둠	암울한 현실
아침	희망찬 미래, 새로운 세상, 조국의 광복

3. 이 작품의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까닭을 말해 보자.

이 시의 화자는 식민지의 지식인으로, 조국의 국권을 강탈한 나라에서 현실에 안주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4-(1) 쉽게 씌어진 시

4.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작가 연구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성찰적, 고백적, 회고적, 자조적
- 제재: 젊은 날의 삶
- 주제: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
- 특징: ①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의 삶을 반성함.
② 영탄적 어조가 드러남.
③ 화자 스스로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냄.

(1) 「쉽게 씌어진 시」와 「질투는 나의 힘」에 나타나 있는, 자아에 관한 화자의 인식을 말해 보자.

「쉽게 씌어진 시」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이러한 무기력한 현재의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진다. 「질투는 나의 힘」의 화자는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일에 몰두하고 질투만 할 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4-(1) 쉽게 씌어진 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옥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노트를 끼고
 ㉡높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옥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속.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나)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남산고등학교 (부산)

1.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내적 갈등의 과정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 ㉡은 자아성찰의 주체이고 ㉢은 자아성찰의 대상이다.
- ㉢ ㉢과 ㉠의 내적 갈등의 원인은 외부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 ㉣과 ㉡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4-(1) 쉽게 씌어진 시

㉠ ㉡과 ㉢은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남산고등학교 (부산)

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현실의 부당함을 인식할 수 있지만 정작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는 뜻이야.
- ㉡ ㉡ :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을 바꾸는 데는 소용이 없는 지식을 공부하려 간다는 뜻이야.
- ㉢ ㉢ : 암울한 현실과는 관계없이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 ㉣ : 헛되고 의미 없는 일에 매달려 정작 중요한 일은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 ㉤ : 바쁘게 사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나타나는 부분이야.

남산고등학교 (부산)

3.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관점에서 (가)의 ‘어둠’과 ‘아침’의 함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보기1>

운동주의 시고를 읽어본 이양하는 출판을 보류하도록 권한다. 몇 편의 시가 일제의 검열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일본 유학을 앞두고 있는 운동주의 신변에도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운동주는 일본 유학 중 사상범으로 특고 경찰에 검거된다. 교토제국대학에 다니던 송몽규도 함께 잡혀 들어가는데 이들의 죄명은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말하자면 독립 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복을 6개월 남기고 운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을 안고 살았던 시인 운동주. 그의 시 세계를 지배하는 정서는 부끄러움과 죄 의식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일제 강점기 현실이라는 테두리와 내면세계 사이에서 그는 자기혐오와 수치심에 빠져 괴로워했다.

<보기2>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은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고 보고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작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고, 작품 역시 그러한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담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살았던 구체적 시대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며, 작품이 시대의 어떠한 모습을 반영했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건>

• “어둠’은 ~(이)라는 뜻이고, ‘아침’은 ~(이)라는 뜻이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시오.

•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각각 5자 이내로 서술하되, 모두 <보기1>에서 핵심어를 찾아 포함하여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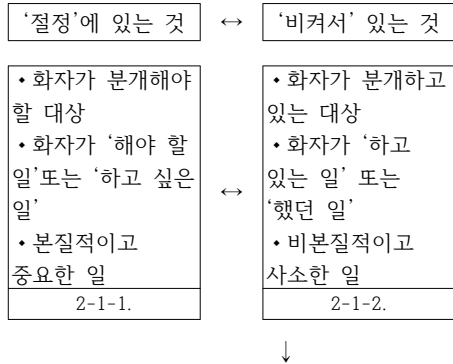
남산고등학교 (부산)

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일상어를 사용하여 사실적,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대조적인 시어나 상황을 드러내며 현실 극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 독백적 어조, 자조적 어조를 통해 진솔한 자기 고백과 반성을 나타내고 있다.
- ㉣ 경험이나 일화를 나열하는 형식을 통해 실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 비속어 사용을 통해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남산고등학교 (부산)

5. 다음은 (다)를 도식화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2. 주제 : 자신의 ~에 대해 ~하고 있다.

(1) 빈 칸에 들어갈 적절한 시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세 가지씩 쓰시오.

<조건>

• 시어를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쓸 것.
 • 세 가지만 찾아 쓸 것.

(2) 윗글의 주제를 <보기>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제시된 문장 형식대로 서술하시오.

주제 : 자신의 ~에 대해 ~하고 있다.

<보기>

• 소시민성 : 사회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안정만을 추구하는 자기 보전적 태도

4-(1) 쉽게 씌어진 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욕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노트를 끼고

높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욕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
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르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펜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펜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㉔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㉕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면목고등학교 (서울)

6.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 ~ (다) 모두 현재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 (가) ~ (다)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가)는 (나)와 달리 자기 성찰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 (나)는 (가), (다)와 달리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 (가) ~ (다) 모두 자신을 자책하면서 지식인으로서 역사적 사명감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면목고등학교 (서울)

7. ㉑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㉑ : 제한되고 억눌린 공간으로, '밤비', '어둠'과 함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 ㉒ : 직접적인 행동으로 현실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를 통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드러나 있다.
- ㉢ ㉓ : 조국의 식민지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㉔ :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 ㉕ :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통해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면목고등학교 (서울)

8. 위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가)에서 시적 화자의 저항 의지이자, 새 시대를 위한 화자의 노력이 드러나는 시구를 찾아 2어절로 쓰시오.
- (2) (다)에서 부조리한 현실과 맞서는 곳으로 화자의 비판 의식의 지향점을 의미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 (3) (다)에서 화자가 분개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면목고등학교 (서울)

9.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대조적인 상황이나 대비되는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본질적인 일에 분개할 줄 알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진 현재의 삶에 대해 자조와 반성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 비속어와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실제적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구체적인 일화들을 나열함으로써 서술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반복적 표현과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면목고등학교 (서울)

10. ㉖ ~ ㉙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 ㉖ : 중요한 문제에는 방관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질문이군.
- ㉡ ㉗ : 설령당집 주인의 속물적 근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군.
- ㉢ ㉘ : 부정과 불의에 저항하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는 전통을 의미하는군.
- ㉣ ㉙ :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에게 반항하는 것을 의미하는군.
- ㉤ ㉙ : '모래, 바람, 먼지, 풀'과 같은 화자가 자연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있다.

“티스 딸 고궁을 나오면서” 분석 정리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비분질적인 일, 사소한 일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인력차원의 부도덕성, 탐욕스러움 -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비분질적인 일, 사소한 일

분개하고 있는 대상 - 함입는 지름

옹졸하게 분개하고 실형탕집 돼지 같은 주인 너한테 욕을 하고

사소한 일에 분개하는 자신의 옹졸함에 대한 고백, 바속어 사용, 회사 자신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는 장치

옹졸하게 욕을 하고

▶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나의 모습'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 』, 중요하고 분장적인 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군대를 파견함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침묵함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사소한 일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 중요한 일은 실현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모습에 대한 반성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무엇인가 옹졸하게 살아와서 무기력함, 소시민성이 꿈에 빠져 있음

가로놓여 있다

이러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 』, 회사의 경합당-애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시민성, 옹졸함을 보여 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간호사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정보원이 생각하는 사소한 일

너스들 옆에서,

▶ 과거부터 계속된 '나의 옹졸한 삶'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점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사소한하고 분장적일 일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무기력한 회사의 모습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사소한 일임에도 건디기 힘든 고통으로 여김

▶ 힘없고 무기력한 자신의 존재 인식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옹졸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반성, 절정에 못서는 일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서 있다

방관자적이고 소시민적인 일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 정면에서 대결하지 못하고 비껴서 있는 '나의 비겁함'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태도

왕궁의 음탕

절정(에 있는 것)

모래, 바람, 먼지, 풀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강하게 항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힘 있는 자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 힘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풍물인.

□ 나의 왜소한 모습을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조함.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야 먼지야 풀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자기반성

정말 얼마큼 작으나.....

▶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자조적인 자기반성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 함. →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 표현

● **작품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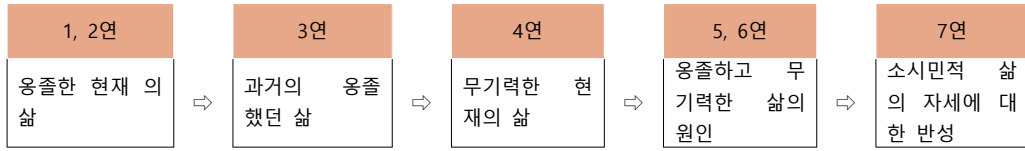
이 작품에는 본질적인 문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소시민적 모습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 시 전체에 드러나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자는 고궁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왕궁', 즉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 시가 쓰인 1960년대의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화자가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인 '왕궁의 음탕'은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있는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 강하게 항거하지 못하고 방관 자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자신을 '모래, 바람, 먼지, 풀'보다도 작은 존재로 인식한다. 이처럼 화자는 사실적 일화의 나열과 비유적 대상을 통해 자신의 속되고 현실 순응적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자기반성을 통해 화자는 독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제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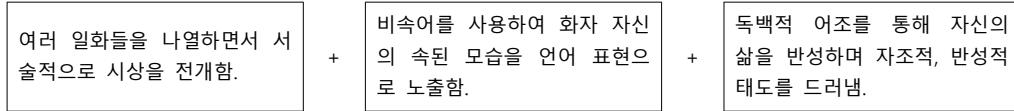
길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자조적, 비판적, 반성적
제재	자신의 웅졸함과 소시민적 삶
주제	부당한 사회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조적 상황과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일상의 경험과 일화를 나열하여 실제적 삶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보여 줌. • 일상어,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반성함. •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을 표현함.

4-(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 시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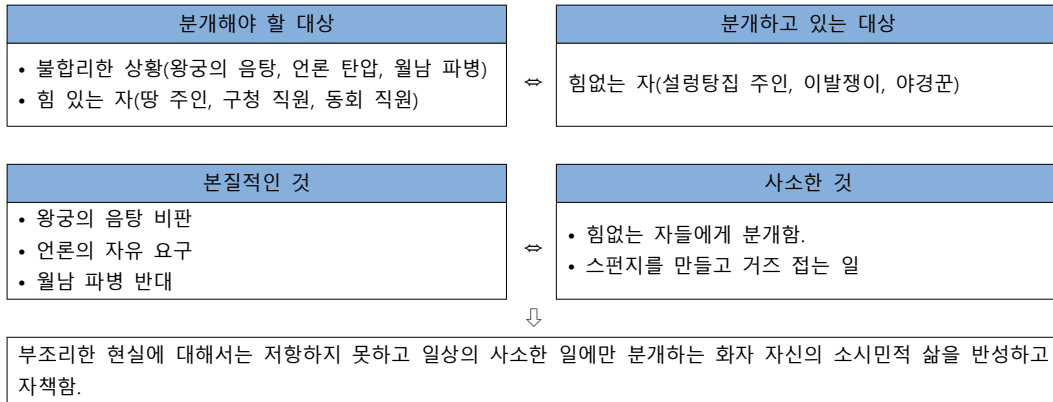
2. 특징과 효과



3. 시어 및 사구의 상징적 의미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 화자의 소시민적 삶의 자세 및 방식을 보여 줌.
왕궁의 음탕	독재 권력과 그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의 부도덕과 탐욕
절정(에 있는 것)	불의에 정면으로 항거하는 삶, 화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
모래, 바람, 먼지, 풀	작고 보잘것없는 자연물. 화자가 자신의 왜소한 모습과 대비하여 자조하는 대상

4. 디조크 상황과 화자의 비도



5.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외의 비교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갈래	1960년대라는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노래한 시	1960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권력의 한양상을 보여 주는 소설
비판 대상	커다란 부정과 불의에는 대항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것에만 흥분하고 분개하는 '나'의 모습	아무런 권력도 없으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두 청년을 두려워하며 나약한 태도를 보이는 이발소 안 사람들의 모습

↓

두 작품 모두 당대 사회의 부당한 권력과 그러한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옹졸한 소시민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 나타남.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학습 활동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자.

분개해야 할 대상	분개하고 있는 대상
왕궁,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	힘없는 자인 설령탕집 주인, 이발쟁이, 야경꾼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왕궁의 음탕 비판 •언론의 자유 요구 •월남 파병 반대	•설령탕 주인에 대한 분개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기
절정'에 있음.	'비켜서' 있음.
자신의 소시민적인 모습을 반성함.	

1.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김수영 시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 보자.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어 구사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 일상어: 50원짜리 갈비, 20원, 스펀지, 거즈, 개의 울음소리, 애놈의 투정, 은행나무 잎
- 비속어: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

3. 다음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소설이다.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얇은 청년은 거울 속에서 흘끗 쳐다보며,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 아니군.” 하였다.
새로 들어선 청년은 벌써 말뜻을 알아듣고 금시 처 죽일 듯한 눈길로 이발소 안을 휘익 둘러보았다.
귀하신 분께서 또 한 분 이렇게 나타나자 이발소 안은 두 곱으로 써늘해졌다. 모두 간이 콩알만 해져서 조마조마하였다.
“왜, 어쨌기?”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들이 덜 되어 먹었던 말야. 요즈음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멍청해서들.”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지. 도대체에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곤란한데에.”
이제 두 청년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된 이발소 안에서 주거나 받거나 했다.
[중략]
잠시 뒤,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복 차림인데, 신분증을 내보이며 두 청년에게 불심 검문을 하였다. 그들은 신분증을 내보이고 비쭉비쭉 웃기까지 하며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임을 밝혔다. 이발소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 두 청년은 관명 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도 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 태세를 지니고 사회 기강을 확립하자고 강조했을 뿐이었다.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죄과에 해당될 만한 법조문은 없는 듯하였다.
그들은 일단 연행이 되었으나 곧 석방이 되었다.
-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에서

재제 연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비판적, 풍자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1960년대 서울 어느 이발소 안
주제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지 못하는 소시민의 비굴함 비판
특징	•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상황을 통해 사회 전체의 문제를 우의적으로 드러냄. •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인물을 등장시켜 소시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함.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위 작품의 공통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화자가 위 작품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시를 지었을지 상상하여 말해 보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모두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강압적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화자가 위 작품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할 때, 두 청년의 관점이라면 ‘사복 차림’의 사내에게는 굽신거리고 이발소 안의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를 쳤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를 썼을 것이고, 이발소 안 사람의 관점이라면 실제 없고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당당하지 못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시를 썼을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월남 : '베트남'의 음역어
 *야경꾼 :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
 람.
 *포로수용소 : 포로를 유치하고 거주시키는 시설.

원목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여러 일화들을 나열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자문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반성이 지속됨을 표
 현한다.
- ㉣ 시간의 역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낸다.
- ㉤ 대조적 상황과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
 내고 있다.

원목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수영은 시를 통해 세상의 허위와 부정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의 시는 속
 물적이고 부조리한 화자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
 을 지닌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응시하는 이 정직함만이 자기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그의 시에 비속어가 많은 것은 바로
 정직함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 ㉠ 화자가 설렁탕집 주인을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비속어로
 비난한 것은 화자 자신의 속물적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 것
 이군.
- ㉡ 화자가 '한번 정정당당하게'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신
 의 부조리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자기를 반성하기 위함이군.
- ㉢ 화자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다고 표현한 것은 자기
 의 부조리한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군.

- ㉓ 화자가 '개의 울음소리'와 '애놈의 투정'에 '진다'고 표현한 것은 진정 분노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를 표현한 것이군.
- ㉔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비켜서 있다'고 표현한 것은 부정한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삶을 표현한 것이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연)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2연)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3연)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4연)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과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5연)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㉔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6연)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7연)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금옥여자고등학교 (광주)

3. 위 시의 각 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1, 2연 - 작은 일에 분노하며 큰일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 ㉒ 3연 - 정정당당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 ㉓ 4연 - 힘없고 무기력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 ㉔ 5연 - ㉔는 화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당하게 실천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
- ㉕ 6연 -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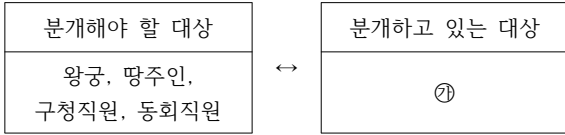
금옥여자고등학교 (광주)

4.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일상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일화를 나열하고 있다.
- ㉢ 대화체로 시작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탄식적 어조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 화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1960년대 사회적 문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털어 놓음으로써 진솔한 느낌을 준다.

금옥여자고등학교 (광주)

5. 위 시에 나오는 대상들을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아래 ㉠에 해당되는 것을 세 개 골라 그대로 쓰시오.



금옥여자고등학교 (광주)

6. <보기1>은 위 시의 7연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시적 의미를 갖는 구절을 <보기2>의 시에서 고르시오.

<보기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마지막 연은 화자가 자신을 미래와 먼지처럼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인식하는 동시에 극적인 자기반성을 보여준다.

<보기2>

㉠밤의 식료품 가게 / 케케묵은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복어들, / 복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썸이다.
 한 쾌의 혀가 /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썸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 복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 해엄처 갈 데 없는 사람들
 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복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최승호 - 복어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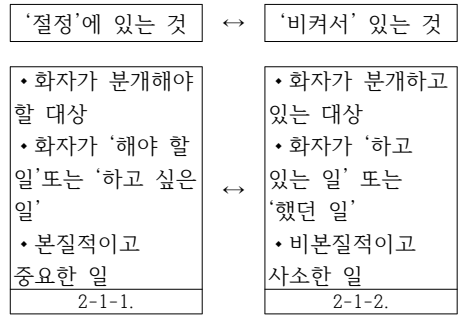
남산고등학교 (부산)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일상어를 사용하여 사실적,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대조적인 시어나 상황을 드러내며 현실 극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 독백적 어조, 자조적 어조를 통해 진솔한 자기 고백과 반성을 나타내고 있다.
- ㉣ 경험이나 일화를 나열하는 형식을 통해 실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 비속어 사용을 통해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남산고등학교 (부산)

8. 다음은 윗글을 도식화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2-2. 주제 : 자신의 ~에 대해 ~하고 있다.

3-(1) 어미 말과 새끼 말

1.④ 2.⑤ 3.② 4.① 5.⑤ 6.④ 7.③ 8.① 9. (가)는 구비설화 중 민담이고, (나)는 고전소설이다. 두 작품은 모두 우리보다 큰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서 우리 조정을 궁지에 몰지만, 비범한 이가 나타나 문제를 통과하게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강대국에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공통적으로 드러낸다.

3-(1) 송인

1.③ 2.④ 3.⑤ 4.자연과 인간사가 대비된 부분은 1행과 2행이며, 봄의 정취와 인간사의 애달픈 이별을 대비하여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5.③ 6.④ 7.① 8.③ 9.① 10.④ 11.③ 12.④ 13.④ 14.② 15.③⑤ 16.① 17.④ 18.⑤ 19.③ 20.⑤ 21.⑤ 22.⑤ 23.⑤ 24.① 25.④ 26.1행과 2행에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강조한다.

3-(2) 사미인곡

1.② 2.⑤ 3.④ 4.③ 5.(1) 가을, '서리', '기러기' (2) 힘들게 사는 백성이나 화자가 있는 곳까지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1)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2)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여성의 마음에 빗대어 노래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한다. 7.⑤ 8.②③ 9.'님의 옷'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10.④ 11.⑤ 12.② 13.④ 14.㉠ 동풍 ㉡ 녹음 15.③ 16.① 17.② 18.③ 19.④ 20.③ 21.⑤ 22.② 23.④ 24.⑤ 25.③ 26.⑤ 27.(1)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 (2)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 (3)은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나타낸다. 28.④ 29.④ 30.⑤ 31.④ 32.'연지분'을 통해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3-(2) 태평천하

1.④ 2.(1) 판소리적 문제 (2) 윤직원을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인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3.② 4.④ 5.④ 6.① 7.'진시황'이 의미하는 인물은 윤 직원 영감이다. '호해'가 의미하는 인물은 윤종학이다. <보기>에서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같이 윤 직원 영감은 윤종수와 윤종학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집안을

유지해줄 것을 바랬다 8.⑤ 9.① 10.물을 친 듯이 11.⑤ 12.② 13.(1) 태평천하 (2)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이 소설에서 작가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14.② 15.④ 16.⑤ 17.⑤ 18.③ 19.③ 20.③ 21.① 22.태평천하 23.④ 24.(1) 망진자는 호야니라 (2) 경찰서장, 군수 (3) 전보 25.④ 26.② 27.② 28.④ 29.⑤ 30.⑤ 31.④ 32.⑤

3-(3) 정선 아리랑

1.① 2.① 3.화자는 ㉠에서 고국인 조선을 떠난 슬픔과 서러움, 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4.② 5.③ 6.⑤ 7.④

4-(1) 제망매가

1.④ 2.③④ 3.② 4.[A]는 누이의 죽음에서 두려움과 애처로움을 느끼고, [B]는 누이의 죽음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가 나타난다.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5.④ 6.③ 7.④ 8.㉠ 어즈버 ㉡ 집약 ㉢ 3단 구성 9.① 10.③ 11.② 12.③ 13.④ 14.② 15.② 16.⑤ 17.③ 18.② 19.㉠ 죽음에 대한 두려움, ㉡ 누이의 요절, ㉢ 같은 부모 20.⑤ 21.① 22.④ 23.③ 24.① 25.④ 26.(가) 10구체 향가의 감탄사 '아아'는 (나) 시조의 '어즈버'로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 서, 결의 3단 의미 구성의 세 번째 의미 단락인 낙구와 종장의 시작 부분에서 시상을 집약하여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27.② 28.⑤ 29.④

4-(1) 정산별곡

1.② 2.③ 3.② 4.③ 5.② 6.5연, 돌 7.시적 화자는 5연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8연은 술을 마셔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8.⑤ 9.① 10.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비애를 뜻한다. 11.② 12.③ 13.② 14.윗글의 '물'은 속세를, <보기2>에서 '물'은 사랑, 이별, 죽음 등을 뜻한다. 15.② 16.④ 17.③ 18.④ 19.① 20.② 21.후렴구,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연과 연을 구분한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22.㉠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매개체 23.④ 24.③ 25.② 26.④ 27.후렴구의 반복, 3음보의 율격, 'ㄹ'과 'ㅇ' 음운의 반복 28.① 29.⑤ 30.(나)는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고 (다)는 자연을 유가적

덕목과 연군의 정,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31.⑤ 32.④ 33.② 34.② 35.④ 36.④ 37.① 38.실연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속세를 떠나 청산에 들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 노래이다. 39.② 40.갈던 발 갈던 발 본다. 속세에서 갈던 발 본다. /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속세에서 갈던 발 본다. 41.④ 42.③ 43.① 44.⑤ 45.④

4-(1) 어부사시사

1.① 2.③ 3.① 4.⑤ 5.하사2에서는 '년납, 청약립', 추사 9에서는 '서리, 치운 줄을'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6.⑤ 7.②연은 술을 마셔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8.① 9.③ 10.'도선'은 낚싯배, 즉 자연에서의 삶을 의미하고, '부세'는 속세를 의미한다. 화자는 낚싯배를 타고 지내는 자연에서의 삶이 속세의 삶보다 더 좋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난다 11.⑤ 12.③ 13.③ 14.① 15.① 16.⑤ 17.① 18.⑤ 19.② 20.⑤ 21.⑤ 22.③ 23.⑤ 24.④ 25.① 26.① 27.⑤ 28.③ 29.② 30.(1) 무심한 백구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2) 아, 날이 저물어 간다 편안히 쉬는 것이 마땅하다

4-(1) 쉽게 쓰여진 시

1.⑤ 2.⑤ 3.어둠은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이라는 뜻이고, 아침은 반드시 올 광복이라는 뜻이다. 4.② 5.2-1-1.왕궁의 음탕, 붙잡혀간 소설가, 월남 파병 2-1-2.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야경꾼, 이발쟁이 2-2.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6.⑤ 7.③ 8.(1) 등불을 밝혀 (2) 절정 (3) 왕궁의 음탕, 월남 파병 9.② 10.① 11.③ 12.④ 13.④ 14.암울한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15.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자신의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6.② 17.① 18.(1) 조국의 광복, (2)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3) 내면적 자아, (4) 아름다운 혼 19.② 20.④ 21.⑤ 22.① 23.④ 24.① 25.⑤ 26.④ 27.⑤ 28.③ 29.① 30.③ 31.현재는 일제 강점기인 '어둠'의 암울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시대처럼 올 아침'인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짐한다는 의미이다. 32.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를 뜻한다 33.① 34.(가)의 등불은 일제 강점

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희망을, (나)의 등불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뜻한다 35.④ 36.④ 37.시적화자의 신분은 일본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이다. 화자의 삶의 태도는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38.⑤ 39.① 40.⑤ 41.부끄러운 일이다 42.⑤ 43.② 44.④

4-(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④ 2.④ 3.② 4.③ 5.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야경꾼, 이발쟁이 6.⑤ 7.② 8.2-1-1.왕궁의 음탕, 붙잡혀간 소설가, 월남 파병 2-1-2.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야경꾼, 이발쟁이 2-2.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9.⑤ 10.① 11.③ 12.② 13.④ 14.④ 15.④ 16.④ 17.② 18.⑤ 19.③ 20.⑤ 21.⑤ 22.① 23.④ 24.② 25.② 26.① 27.② 28.⑤ 29.③ 30.② 31.③ 32.①

4-(2) 김현감호

1.③ 2.① 3.③ 4.⑤ 5.② 6.③ 7.⑤ 8.④ 9.전설. '원성왕 때'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어 있고, '호원사'라는 절이 구체적 증거물로 제시되어 있다.

4-(2) 구운몽

1.③ 2.'구'는 성진과 8선녀인 9명의 등장인물을 의미하고, '몽'은 현실-꿈-현실의 환몽구조를 의미한다. 3.① 4.① 5.② 6.② 7.①④ 8.춘몽 9.'구'는 성진과 팔선녀인 9명의 인물, '운'은 인생이 구름처럼 덧없다는 주제를, '몽'은 구성인 환몽구조를 의미한다. 10.① 11.③ 12.③ 13.(1) 꿈 (2) 권총 (3)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삶의 의지(인간애) 14.③ 15.⑤ 16.⑤ 17.④ 18.① 19.③ 20.② 21.④ 22.③ 23.④ 24.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를 비치고 있었다. 25.① 26.④ 27.⑤ 28.(1) 꿈,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2) 불생불멸의 도 29.⑤ 30.③ 31.① 32.② 33.⑤ 34.③ 35.㉠와 ㉡는 모두 인물이 꿈속의 경험을 통해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6.③ 37.③ 38.② 39.⑤ 40.④ 41.② 42.자신은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었다. 43.①

4-(2) 너와 나만의 시간

1.③ 2.① 3.⑤ 4. (1) 풋소리는 김 일등병의 심리가 기대감에서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2) 권총은 김 일등병을 인가가 있는 곳까지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5.(1)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 (2) 개나리가 망울졌다. 6.④ 7.④ 8.② 9.② 10. ⑤ 11.⑤ 12.③ 13.⑤ 14.③ 15.③ 16.주 대위의 내면 심리가 (A)절망에서 (B)희망으로 전환되고 있다. 17. ② 18.④ 19.④ 20.⑤ 21.② 22.② 23.⑤ 24.④ 25.① 26.②⑤ 27.⑤ 28.③ 29.⑤ 30.③ 31.⑤ 32.죽은 동료의 시신이나마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쫓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4-(2)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⑤ 2. (1) 난쟁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빈민층을 상징한다. (2) 영희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상징한다. 3.①② 4.⑤ 5.⑤ 6.①③ 7.② 8.③ 9.④ 10. '이 죽은 땅'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의미한다. 11.③ 12.② 13.④ 14.② 15.⑤ 16.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여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17.② 18.③ 19.⑤ 20.(1) 라디오 (2) 내가, 가리켰다. (3) 아버지는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21.① 22.⑤ 23.③ 24.⑤ 25.③ 26.② 27. (1) 철거 계고장 (2) 죽은 땅 (3)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 계층 28.④ 29.④ 30.④

4-(3) 봉산 탈춤

1.④ 2.①② 3.① 4.③ 5.⑤ 6.③ 7.④ 8.② 9.③ 10.② 11.④

4-(3) 원고지

1.② 2.④ 3.(1) 쇠사슬, 철쇄, 굵은 줄 (2) 속박 4.① 5.③ 6.③ 7.③ 8.① 9.⑤ 10.⑤ 11.② 12.④ 13.③ 14.(1) 장녀 (2) 관객들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맞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여 등장인물이나 극중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15.④ 16.③ 17.④ 18.③ 19.② 20.(1) ㉠ 찬란한 인생, ㉡ 개성을 잃은 노동자 (2) 시계21.④ 22.④

4-(3) 관상가와의 대화

1.① 2.② 3.③ 4.① 5.사람의 걸모습으로만 관상을 본다. (또는 틀에 박힌 것만을 따른다. /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6.① 7.④ 8.④ 9.관상가는 걸모습에서 보이는 고정관념이 아닌 (A)'대상의 이면에 숨겨진 의

미'에 기준을 갖고 관상을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쓴이는 (B)'편견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 끝 -

3-(1) 송인

1.③

▶2구연 색채어 사용이 없음.

▶**넣어둬, 패턴 공략**◀

1. <자연의 긍정적 현상>과 <인간의 부정적 모습>의 대비 테마는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2. 선지에 <감각>이란 말이 나오면 시각(보이는 것), 청각(소리), 촉각(피부의 느낌), 후각(냄새), 미각(맛)과 관련지어라!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3. 과장법의 종류

ㄱ. 확대 과장법- 태양 같은 내 마음

ㄴ. 축소 과장법- 내 심장이 쥐꼬리 만해졌다.

4.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2.④

▶④만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나머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나타냄.

◆**주제 저장소**◆

① <진달래꽃>: 승화된 이별의 정한

② <가시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안타까움

③ <황조가>: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④ <슬픔이 기쁨에게>: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추구

⑤ <초혼>: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옳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⑤

▶<보기>의 3연은 임에 대한 원망이 아닌, 사공에 대한 원망이 드러남.

<**서경별곡**>

*주제: 이별의 정한

*해제: 이 작품은 애절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情恨)을 노래하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문학의 전통으로, 고려 가요 '가시리'와 함께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화자는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등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현실적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과 다른 독특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옳다, 1등급 조언**◀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외부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낯선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데 수험생들에겐 당연히 부담이 된다. 무엇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그럴 땐 기출에 나온 작품 군들만이라도 조금 정리해두자. 이렇게 <보기>로 전문이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제와 길잡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렇게 익히다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큰 틀의 감상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여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3음보 vs 4음보

ㄱ. 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ㄴ. 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2. 문학 배경의 종류 (★)